

전남도 대표축제 10개 선정 다각 지원

목포항구·여수거북선·광양매화 등 예산 2000만원·컨설팅·홍보 지원 민고 찾는 전국적 축제 성장 뒷받침

전남도가 22개 시·군 100여 개의 축제 가운데 목포항구축제, 여수거북선축제, 광양매화축제, 곡성세계장미축제, 해남미남축제, 무안연꽃축제 등 10개 축제를 대표 축제로 선정했다. 대한민국 국향대전(합평),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황룡강노란꽃잔치(장성),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도 포함됐다.

주민 참여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높은 이들 10개 축제에 대해 전남도는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

하고 관광객이 민고 즐겨 찾는 축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축제당 2000만원의 예산 지원과 함께 전문가 축제 컨설팅, 축제현장 평가단 운영, 다양한 홍보 지원 등 다각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 가운데 목포항구축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시 공간, 퍼레이드, 공연 등 주민 주도형 축제로 개최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곡성세계장미축제는 관광객에게 드레스와 연미복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스포츠댄스 선수의 지도로 왈츠 공연을 펼치는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관광객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 합평 대한민국국향대전은 축제 입장료의 일부를 축제 쿠폰으로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호평을 받았다. 2023년 전남도 대표축제는 지

난 9일 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위원들의 발표평가 점수와 2022년 축제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해 선정했다.

앞으로 2월 강진청자축제와 3월 한반도의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광양매화축제를 시작으로 전남 축제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한 축제가 정상 개최되면서 전남 관광에 활기가 넘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2023년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전남 축제들이 연중 정상 개최될 예정"이라며 "선정된 10개 대표축제뿐만 아니라 시기별·테마별 1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니 올해 전남을 찾아 축제를 즐기고 넉넉한 자연에서 쉬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어업 대체인력 인건비 80%

연간 최대 60일까지 지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사고, 질병,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의 어가 경영 안정을 위해 어업활동을 위한 대체인력 비용을 연중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어가는 지원 신청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인원 등으로 방문 신청이 곤란하면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요양 진단 ▲3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교육 참여 ▲임신 및 출산 ▲4대 중증질환 등을 진단받은 어업인이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1일 인건비 10만원 중 8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일수는 1주일 이상 요양 진단, 3일 이상 입원은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이며 4대 중증질환은 최대 60일이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지역 어업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사고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의 어가 경영 안정을 위해 어업활동을 위한 대체인력 비용을 연중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물김 위판 현장.

인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보도록 지원 금액 확대와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등 어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귀어학교에서 어촌 정착 준비하세요

전남도 교육생 20명 모집

전남도가 귀어 희망자가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전문 기술교육인 '제8기 전남 귀어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20명을 선발한다. 만 65세 이하 귀어 희망자나 어촌에 거주하는 비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교육생은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5주간 강진읍에 있는 전남 귀어학교 생활관에서 숙식하며 귀어 정착부터 다양한 수산업 기술까지 습득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수료자는 도내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의 수수료 일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 귀어학교 교육 과정 첫 2주는 귀어 정책, 수산업에 대한 기본 정보와 분야별 현장 견학으로 운영된다. 3~4주차엔 본인이 희망하는

업종, 품종에 따라 선도어가를 선택해 어촌살이 체험으로 기술을 습득한다.

마지막 5주차는 귀어 성공사례 및 창업 컨설팅, 금융정책 정보를 듣고 자신에게 맞는 귀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올해부터 귀어학교 수료생에게 제공되는 보수교육을 1주에서 2주로 연장해 귀어인의 어촌 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귀어인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현장 중심형 교육을 제공해 차세대 수산인력을 육성하겠다"며 "전남 귀어학교 수산업 전문 기술교육을 통해 귀어인이 청정 수산 1번지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할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귀어학교는 2020년 6월 개교해 7회에 걸쳐 11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 1월 조사 결과 수료생 중 44%(48명)가 어촌으로 정착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필리핀 최대여행 관광 박람회 참가

광주와 공동 홍보관 관광객 유치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전남 해외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필리핀에서 개최된 여행 관광 박람회(Travel Tour Expo 2023)를 참가했다.

여행 관광 박람회 2023는 매년 1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필리핀 대형 여행 박람회로 올해는 광주, 전남, 부산, 제주, 인천 5개 지자체가 참가했다. 전라도관을 방문한 관광객은 4000여 명으로 무안 국제공항 무비자 입국제도, 제주-전남 연계 여행, K-드라마 및 콘텐츠 촬영지인 순천 낙안읍성, 목포 근대역사관, 신안퍼플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광주와 전남이 함께 마련한 공동 홍보관에서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체험 및 SNS 이벤트와 전세기 유치를 위한 여행업 관계자 비즈니스 상담이 함께 이뤄졌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세부, 마닐라에서 현지 관광 설명회를 개최해 필리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 주력했다. 또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제도와 연계해 필리핀 소재 여행사와 무안국제공항 활용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현지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K-콘텐츠, 무안 국제공항 연계 필리핀 관광객의 전남 방문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사회와 공동체 통한 돌봄 기능 강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58곳

전남도 14억 600만원 지원

전남도가 살고 싶은 마을 조성 및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통한 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대상지 158개소를 확정했다. 이들 마을에는 14억60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마을 공동체는 '2023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새싹·열매 단계 58개소,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100개소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다양화와 브랜드 사업 개발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정된 사업은 2개 유형으로 새싹·열매 단계로 나뉘며 마을 자원조사, 마을 계획 수립, 마을 테마 사업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 등이 아이에서 어른까지 돌봄이 필요한 마을의 모든 세대에 반찬 배달, 식사 제공, 긴급돌봄, 간단한 집수리 등으로 안부를 살피며 건강을 돌보는 사업이다.

돌봄 활동을 위한 사업비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공동체 중 우수한 점수를 받은 곡성 가실마을은 마을학교 운영, 가실마을 계획단 운영 등으로 '지속가능한 가실마을 계획수립' 사업을 추진한다. 또 순천 클린마을 돌봄공동체는 주거상황이 열악한 독거노인, 1인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마을 봉사단과 함께 청소, 방역, 정리수납 등을 실시하는 '행복으로 찾아가는 클린돌봄서비스' 사업을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동절기 위기가구 버팀목 역할 톡톡

전남도 취약계층 1961가구

노후주택 개선·난방시설 점검

전남도가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이 겨울철 한파와 난방비 폭등 상황과 맞물려 동절기 위기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겨울철 주거 여건이 열악해 추위 등 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으로 선제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말까지 지원 실적은 총 1961가구 11억3000만원이다. 당초 목표 가구인 1000가구의 두 배에 달했다.

지원 가구 유형은 홀로 사는 어르신 가구가 1207가구로 가장 높은 비율인 61.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어르신 부부 가구와 장애인 가구 각 9.3%, 한부모 가정 3.1%, 다문화가구 3.0% 등의 순이었다.

지원 유형별로는 도배·장판, 새시·창호 교체, 부엌 싱크대 교체 등 노후 주택 개선이 718가구(3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적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생활안정금 지원 465가구(23.7%), 안전한 손잡이 설치 등 소규모 불탄 개선 지원 385가구(19.6%) 등이었다.

특히 동절기를 대비한 지원 유형으로는 난방 시설 수리 지원 214가구, 화재 예방 점검 180가구 등 총 384가구(20.1%)를 차지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지원 사업은 오는 2월 말까지 지속해서 추진한다. 도움을 바라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이통반장,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전남도가 운영 중인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120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